

# 내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 강임준 군산시장, 우원식 예결위원 찾아 지역현안 반영 건의

강임준 군산시장이 2023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에 대응해 주요 국회의원을 만나 등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나섰다.

14일 강 시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국회의원을 만나 군산시 2023년 국가예산 증점 확보대상 사업에 대해 예산확보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했다.

국회단체에서 증액을 요청한 주요 사업은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설치(18억원), △지역거점 전과플래그라운드 구축·운영사업(9억원),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64억원



증액), △군산항 특송화물 발행 및 운영(200억원) 등이다.

특히,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설치 사업의 경우 군산물류지원센터를 활용해 장비구입비만으로 통관장 설치가 가능해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예산편

성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산항 특송화물 발행 및 운영 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000억원이 증액 의결된 만큼 예결위 심의에서도 예산이 의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강 시장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국가예산의 증액을 이끌어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실정이지만, 필요한 사업예산이 꼭 반영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진행”

### 익산 교도소세트장 체험형 콘텐츠 호응… 초고속 ‘매진’

익산 교도소세트장에서 개최 예정인 체험형 콘텐츠 프로그램이 전 회차 매진 행렬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마련한 '교도소가 살아있다' 프로그램이 지난 9일 온라인 예매사이트에서 티켓 예매를 시작한 지 1분 만에 전 회차가 매진되는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익산시와 (재)익산 문화관광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예술공작소, 극단지루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2000세대를 주 타깃으로 연극과 방탈출 게임 등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로 사전예매를 통해 회차별로 32명씩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함께 기획한 해당 프로그램은 익산 교도소세트장

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참여자가 공간적 특성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치밀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실감 나는 연기를 통해 프로그램에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도록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참여자가 시나리오에 따라 이동하고 캐릭터(배우)와 상호작용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체험형 어드벤처로 익산역에서 시티투어버스(호송차)를 탑승하는 순간부터 어드벤처는 시작된다.

프로그램은 오는 18일과 19일, 25일과 26일 네 차례에 걸쳐 1일 2회씩 진행된다.

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짜릿한 경험을 선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수험생 맞춤형 수송대책 마련할 것”

### 정현을 익산시장, 교통 소외지역 읍면 수험생 전수조사… 개별 안내 실시

익산시가 오는 17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통 소외지역 수험생까지 아우르는 수송대책을 추진한다.

정현을 시장은 14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수험생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교통 소외지역 읍면별 수험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수능 당일 버스 시간표를 안내하는 등

맞춤형 수송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버스 운영체계가 지·간선제로 변화되는 만큼 수험생이 이에 대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어 시험 당일 교통량 분산을 위해 직원 출근 시간을 오전 9시부터 10시로 1시간 늦추고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등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주 진행된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른 철저지 대비도 당부했다.

정 시장은 조직 변화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와 사업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분야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분야별 편성을 비롯한 현안업무 추진에 관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익산=이재훈 기자

# 군산시,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추가 검사 실시

군산시는 오는 21일과 22일 이틀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전통시장에서 집합검사와 출장 소재장소 검사로 정기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기간 중 부득이 검사받지 못한 사업장이 다수 있어 추가 검사를 결정했다.

검사장소는 신영시장 옆 공영주차장(금암동 73-51)이며, 운영시간은 점심시간(12:00 ~ 13:30)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검사대상은 10톤 미만의 비자동차용로 상거래에 이용하는 전기식 지시저울, 판수동저울, 접시저울·판저시저울이 해당된다.

검사내용은 구조검사와 오차검사로 이뤄지며, 합격한 저울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저울은 불합격스티커를 부착, 재검을 통해 합격을 받아야 사용 가능하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 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외 기타 문의사항은 시 소상공인지원과 유통혁신계(전화 454-2894)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추후 미수검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빠짐없이 검사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대한민국 제1호 '익산 청년시청' 장관상 수상 쾌거

대한민국 제1호 '익산 청년시청'이 저출산 해법 우수사례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로써 취·창업부터 주거, 복지, 문화까지 아우른 익산의 맞춤형 청년정책이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14일 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며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천 6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자체별 저출산 관련 우수사례를 발굴해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도 심사와 온라인 국민심사, 전문가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11개 자치단체가 사례를 발표하고 질의응답에 응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시가 발표한 '대한민국 제1호 익산 청년시청, 저출산 해법 '청년지원'에서 찾다!'는 저출산해법을 '출산보다 대학도시 익산의 '청년지원'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취업-혼인-출산-취학'의 연계성을 높여 지역 소재 대학에 진학하며 유망한 청년들이 익산에 정착하는 비율을 높여 지속 가능한 청년 유입 효과를 만들겠다고 제안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익산청년시청'은 기존 익산청년센터 청춘의 기능을 확대해 취·창업, 주거, 복지, 문화 등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복합문화공간 취·창업 지원 공간, 소통 공간 등 청년 특화 공간으로 구성될 익산청년시청은 오는 12월 개청식을 앞두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청년시청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장관상까지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청년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청년시청을 중심으로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익산시, 지역업체 지원 강화... 경제 활성화 기대

익산시가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 지원을 강화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시는 지역업체 경영개선을 위해 사업별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선금 지급 가능 금액을 최대 80%까지 확대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한다.

수익계약 금액도 기존보다 2배 상향해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는 4억원, 전문공사는 2억원, 기타공사는 1억 6천만원, 물품과 용역은 1억원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로 얼어붙

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의 가계 경제 안정을 위해 각종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1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은 부서장 관리하에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원활한 사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는 지역 생산 우수제품이 사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매년 2회 이상 지역업체 생산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업체 발굴에 힘써왔다.

【익산=이재훈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김장철 대비 김장용식재료 안전점검

군산시는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실태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을 앞두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영업장의 위생 관리, △식품 원료 적절 사용 및 보관 안전에 대해 중점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그 외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원료 사용 또는 판매 여부 △무신고 또는 표시기준 위반 제품 사용 여부도 확인한다.

위생점검과 더불어 김치류, 고춧가루, 젓갈류에 대한 수거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코로나19 재유행 선제 대응... 마스크 지원

익산시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마스크를 배부한다.

시는 최근 4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일상 생활 속에서 방역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감염에 취약한 음식점, 카페, 미용실, 목욕탕,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5천500여곳에 KF-94마스크를 배부할 계획이다.

마스크는 이달 안에 다중이용시설 현장 점검 시 배부된다. 현장 점검과 함께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주기적인 환기, 소독 등 방역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일상 방역 생활화에 앞장선다.

아울러 시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일상방역수칙에 대해 SNS,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면역력 약화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시민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